

해외여행, 항공권, 여권비자 수속  
불교 성지 순례 전문  
**(주) 예도여행사**  
인근동 프라미어(역사업) 동로구 수동동번지 동업빌딩  
전화 : 02)733-3900

## “1만여 스님 계보 정리했어요”

이·런·사·람

재야 서지학자 김민영씨

조선초 역불장벽에도 불교를 일으킨 문정왕후는 선교 양종을 부활시키면서(1550년) 봉은사에 선종관사로 허응보우(虛應普雨, 1515~1565)스님을 또 봉선사에 교종관사로 천축(天竺)스님을 위촉합니다. 보우스님은 잘 알려진 반면, 천축스님은 교종을 대표하는 인물임에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한국불교가 금과옥조로 삼고있는 <육조단경>의 서문을 쓴 동산덕이(東山德異)스님, 휴정서산스님에게 법을 전한 조선불교의 정통을 이루게 한 무용영관(武容靈觀)스님, 그밖에 단손히 생밀연대 미상 등의 기록으로만 남겨져 불법을 전동해온 많은 스님들이 역사속으로 사라져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대 교류했던 스님들이나 종파들을 비교해 살펴보면 그 스님들의 자리가 잡히고 어떤 사회상에서 어떤 위치였는지 확연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시대 종파와 연관을 스님들의 계보를 정리하고 있는 김민영씨(32, 부산상호신용공고 부회장, 불명·법안). 그는 재야 서지학 연구자로 30년을 이 일에 몰두하고 있다. 석가모니부처님으로부터 인도 28조사 중국6조사 등 33조사를 열거하고 6조 해능에서 우리나라로 이어지는 선종법맥을 중심으로 삼아 그 방계 및 문파와 그 밖의 종파의 법맥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 현재 1800년대까지 정리된 것만 1만여명에 달하는 스님(중국 3천5백여명, 한국 6천5백여명)이 등장했다. 스님들의 계보는 '태동여지도'가 만들어졌던 방식대로 모자이크식으로 이어붙여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작업되고 있다. 전지 10여장을 짜붙인 화선지에 깨알 같은 글자로 스

이 발달했다. 불서와 경전출판 과정에서 나타나 있는 스님들은 어느 시대 어떤 사회환경에서 누구의 영향을 받고 또 누구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 시대와 어떻게 관계지어져나를 풀어야겠다는 원(願)이 선 것이다. 이때부터 그의 '스님 역사 바로세우기'는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그에게 화두로 다가선 인물이 동산덕이스님(1231~마상)이다. 1300년 해동국사 만행(萬興)스님에 의해 우리나라서 처음 출간된 덕이본(육조단경)의 발문에서 만난 스님은 중국 원나라 스님임에도 고려말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육조단경>의 발문에는 "동산스님이 내(해동국사)게 보낸 이 책이 너무 환희심이 나서 강화 선원사에서 출간한다"는 내용이 기록돼있다. 동산스님은 또 일연스님의 제자인 보감국사 혼구스님에게 "무국(無國)도인"이라는 호를 지어준다. 이렇게 선종 구산선문 가운데 가지산파와 사굴산파의 두 거장 과도 교류하며, 화엄종계 스님 진각국사 천희스님에게 원봉



○왼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불조3경>(1286년 일본), 동산덕이본 <육조단경>(1300년), 동산스님의 저서 <도덕경적주>(1527년 단속사종간본)과 <유가어록>(1287년 원판을 1300년경 복각본), 김씨가 소장하고 있는 귀한 서적이다.



○김민영씨는 불교를 알기위해 고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불서 경전 등 전적들이 그가 해온 스님들의 계보정리의 기초자료이다.

은 다른 종파 심지어 사상, 문화도 존중하면서 함께 알아왔다는 것이다. 시계대로 시너지의 상승이다. 그리고 법어집이든 경전 출간이든 자신의 것에 앞서 선대 은사스님 것을 먼저 내면서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이다. 그는 60세까지 직장일을 마치고 그 시점에서 스님들의 계보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후 동산덕이스님에 대해 본격적인 논문을 쓰겠다고 밝힌다.

글: 위영란 사진: 고영배 기자



○김민영씨가 30년동안 작업하고 있는 스님들의 계보 정리표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도 중국의 3국 선종을 비롯한 각 종파 및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연표의 구성도 한다.

### 불교관련 고서 3천여권 수집 자료간 상충내용 출처 밝혀 “30년 작업 10년내 완성 목표”

남들의 법호법명이 적혀있다. 그가 작업과는 동떨어진 이 일에 30년을 매달린 것은 순전히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발심때문이다. 고등학교 2학년때 용성스님의 제자인 현공(玄空) 운주일(尹柱逸)씨에게 불교를 배우면서 불문에 들었다. 그리고 불교를 제대로 알기위해서 한문을 알아야한다는 것을 깨닫고 고3 수험생활기간을 꼬박 한문공부만 보냈다.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다시 사회파로 옮겨 더 다녔다. 60년대는 책이나 출판된 경전이 귀했던 때라 고서점을 뒤지는 것이 일과였다. 주로 불교관련 서적들을 샅샅이 살렸고 또 사서 모았다.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당시 '제행무상 시생법법(漸行無常 是生滅法)'의 뒤 구절 '생멸법이 적멸위락(生滅滅已 寂滅爲樂)'을 얻기 위해 배고프다는 아차에게 목숨을 바치셨다고 합니다. 불법 진승을 위해 구걸 한가지에도 목숨을 버릴정도였는데 경전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찾아지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은 고서가 현재 3천여권, 고서들을 모으다 보니 자연스레 서지학을 연구해야 했다. 또한 주로 수집된 경전 및 불서류는 다른 책과 달리 간기(刊記)가 명시돼 있으며 책이 만들어질 당시 주관했던 스님들이 기록돼있다. 따라서 시대별 지역별로 출판연역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언급되지 않은 많은 스님명호를 접하면서 의문

했다는 기록도 전한다. 조선초 세조때는 <동산화상 법어약목>(동산화상수심록) <동산화상유도보살>과 동산스님의 스승 환산정응선사 등 네스님의 법어집 <사법어>를 간경도감에서 목판 인쇄본으로 출간한다. 나옹스님도 동산스님을 찾았으나 입적해 친견하지 못했다는 기록도 나와있다. 이처럼 한국선종이 입재종을 중시하면서도 정작 '입재어록'은 목판으로 출간되지 않았음에도 동산스님의 어록 저서는 많이 나왔던 것이다. 그가 하고있는 스님들의 계보정리는 일일이 수집한 고서가 기초자료이다. 그러나 "역사기록이란 시대에 의해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그는 바로 이런 점이 작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안다. 자료간의 상충된 내용에 이런 부분은 일일이 출처를 밝혀 계보에 반영시키고 있다. 고서들을 통해 역사 속의 인물과 법의 정수를 만나 시공을 초월한 대화를 해온 그가 얻은 결론이 있다. 그것은 어느 시대건 자기 문화에 대한 무절한 자각을 통한 자긍심을 가질 때 비로소 문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또한 역대 스님들

### 스님계보 연구자료

**불교종파지도** 불교종파의 종파에 따른 법맥을 기록한 책으로 조선초 무학대사가 만든 것과 조선 중기 월계도안스님이 만든 것이었다. 전체가 도표로 되어있으며, 현존하는 것은 1688년(숙종14)묘향산 보현사에서 관각한 도안스님 것이 규장각 도서로 전해진다. 석가모니 이전의 과거 7불(佛)로부터 시작하여 석가모니부처님으로부터 인도 28 중국 6조사 등 33조사를 차례로 열거하고 6조 해능으로부터 우리나라 나옹스님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중심으로 삼고있다. 예능의 제6세대 입재가 나와서 입재종을 창설하였고 입재후 서산대사 휴정까지 기록됐다. 이 자료에 대해 화계에서 이론(理論)도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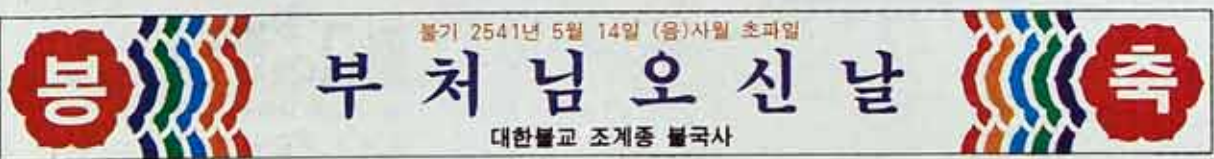


○1764년(영조40년) 전주 종남산 승광사에서 찍어낸 해동불조원류 원본(사진 왼쪽)과 1978년 경문형준스님이 증보한 <중보불조원류> 상·하권(사진 가운데)과 다시 증보 색인까지 나온 <해동불조원류> 2권. <서역중화해동불조원류>, <불조원류>라고도 한다.

책 제목앞에 중화 서역이라 되어 있지만, 주로 해동(조선)의 정통을 서술하고 있다. 사암재명(謝菴采末)스님이 1764년(영조40년) 전주 종남산 승광사에서 찍은 것으로 원본은 현재 김민영씨가 소장하고 있다. 본문에는 과거 7불부터 인도 중국의 33조사에서 조선 1760년대까지의 정통이 상세히 기록돼있다. 권말에 지공스님의 영적 무학스님의 탐정이 있다. 또 맨 앞에 담나라 대학사 태원왕발(太原王勃)의 '석가여래성도응화사적기실'도 있다. <해동불조원류>는 이어 경문(景文)스님에 의해 1978년까지의 스님들이 더 추가돼 증보판 상·하권으로 나왔으며(불서보급사), 이를 다시 불조원류간행위원회에서 색인 포함해 4권으로(원본복사본, 증보판 상·하권) 출간했다(불서출판사). 출간과정에서 누락된 스님과 오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부처님오신날 단청문양 현수막 보급

부처님오신날에 전국 각 사암단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완벽한 디자인과 최고의 제품만을 보급합니다.



■ 크기: 90cm×6m, 가격: 40,000원 / ■ 크기: 90cm×8m, 가격: 50,000 / ■ 크기: 90cm×10m, 가격: 60,000원

## 봉축 꽃 리본

- ◆ 500개 이상 주문시 사할명을 넣어드립니다.
- ◆ 색상은 다양합니다. (분홍, 꽃분홍, 노랑)

### 봉축 어깨띠

- ◆ 100개 이상 주문시 사할명을 넣어드립니다.
- ◆ 색상은 분홍, 노랑, 오렌지



감로기획 ☎(02)723-4306~7, 팩스:(02)738-8682